시대별 의례 설행 배경과 의미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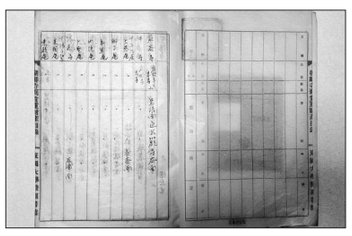
의례문화硏, 23일 심포지엄

시대별 불교 의례 설행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이사장 법안)은 6월 2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대별 불교의례설행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윤소희(부산대)의 '일본의 오봉에 비추어본 한국의 조상 숭배 문화', 이성운(동방대)의 '근현대 한국불교의례의 아우라', 김경집(진각대)의 '근대 불교의례의 변화와 시대적 의미', 민순의(서울대)의 '조선전기 수륙재의 성격과 내용' 등이 각각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스님을 비롯해 김성순(서울대),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장), 한상길(동국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서울시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동국대 소장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동국대 '사찰재산목록' 서울시 등록문화재 신청

서울시는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6월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동국대의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20세기 전반 전국 950여 곳의 사찰에서 소장했던 불상과 불화 등을 기록한 사찰재산목록이다.

총 26책으로 구성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안쪽에는 '동국대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다. 동국대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인 만큼 일제시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1950년대 후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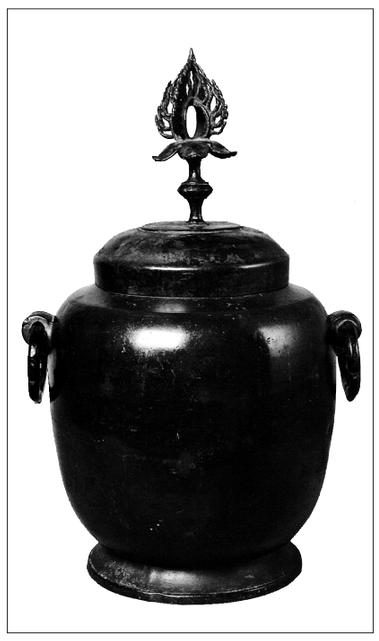
서울시는 "희소성 있고 보존이 어려운 자료인 만큼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 자료 보존과 함께 새로운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운문사 銅壺, 통일신라 사리기"

〈동항아리〉

최응천 동국대 교수 운문사 학술대회서 주장

뚜껑의 '화염보주'에 주목 사리신앙 연관 많은 양식 시기도 고려 아닌 통일신라 운문사 성보 보존 논의도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208호 청도 운문사 '동호(銅壺 · 동항아리 · 사진)'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뒤 고려시대부터 사리기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6월 10일 청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운문사 동호의 제작 시기와 용도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운문사의 9개의 보물 중 유일한 공예품인 동호는 높이 55㎝, 구경 19.5㎝로, 뚜껑 손잡이에 연꽃잎 6장과 불꽃 모양 장식이 달렸다. 또한 어깨 부분에는 '함옹(咸雍) 3년(1067) 6월 개조했고 무게는 30근'이라는 명문이 있다.

그동안 이 동호는 '감로준(甘露樽)'이라는 명칭이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을 담는 용기로 추정돼 왔다. 비슷한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운봉사 명문 동항아리 등이 있으나 최 교수는 운문사 동호는 뚜껑 손잡이에 불길 모양 장식물인 '화염보주(火炎寶珠)'를 들어 차이점을 제시했다.

그는 "화염보주는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에서 나온 7세기 후반 사리기의 청동 외호(外壺)가 기원"이라며 "이후 사리기에서 화염보주는 사라졌지만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 사이에 세워진 승탑이나 탑비의 상부에서 유사한 장식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염보주는 사리신앙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동호도 사리기로 쓰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수는 동호 뚜껑의 불꽃 장식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려 정종 3년(1067)에 개조되면서 부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뚜껑 내부에 별도로 손잡이와 결합된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손잡이 하단부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면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해 다른 용도로 사용돼다가 고려시대에 손잡이만 별도로 만들어 사리기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운문사 소장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 발표들이 이어졌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운문사 작압전(鵲岬殿) 석조석가불좌상(보물 제317호) 조성 배경과 양식적 특징을 살폈으며, 운문사 사천왕상이 석굴암 사천왕상을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운문사 유물을 통해 본 가람배치 변화'를, 김정희 원광대 교수는 '운문사의 불화와 대웅보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를, 심주완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운문사 문화유산의 보존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규(영남대), 정성권(동국대), 이용진(국립공주박물관), 임영애(경주대), 김미경(문화재청)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불교학자, 禪佛敎를 논한다

동국대 종학硏 · 선센터,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6월 27일~7월 5일 진행 집중수행 · 선지식 대담도

세계 선불교 현황과 간화선의 위상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8박 9일 동안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인제 백담사 등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2011 · 2012 · 2016년까지 진행돼 올해로 5회째를 맡는다.

'세계 속의 선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재현 동명대 교수와 동국대 정운스님 등 국내 학자들을 비롯해 미국의 마크 블럼, 호주의 로버트 셔, 인도의 라트네시 등 저명한 국외 학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한 제1회 수불학술상 수상 논문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동국대 간화선 국제학술회의의 특징은 '학술발표'와 '집중수행' 그리고 '스님들과의 대담'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학문의 이론적 이해와 실천수행, 점검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방식이다. 간화선을 확인하고 이해함에 있어 교학 혹은 수행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견(正見)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국내 · 외 학자 및 외국인 참가자 약 80여 명이 백담사에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간화선을 직접 실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간화선 실참 후에는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방문해 외국인 수행참가자들에게 한국 정통 간화선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이번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학술논문 발표와 간화선 실참 그리고 선사 참문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를 통해 간화선 이론의 교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와 수행자들에게 실제적인 간화선 수행 기회를 제공해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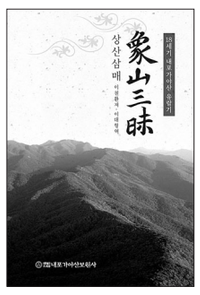
내포 가야산은 불교 특구였다

보원사, 이철환 著 '상산삼매' 번역본 발간

260년 전 가야산 유람기 당시 사찰 · 문화 아는 단초

"가야사는 옛날의 대총림이다. 옛날에는 많은 비석들이 있어서 사찰을 창건한 본말과 상주하며 사용했던 물건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었는데, 노복들이 나리를 믐타 부수어 그 자취를 지워버렸다."

〈상산삼매〉中



내포 가야산이 백제 불교의 명맥을 간직한 특구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18세기 유생의 유람기가 번역 · 발간됐다.

내포 가야산 보원사는 "내포 가야산이 불교문화특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260여년 전 고서인 〈상산삼매 · 사진〉를 번역 · 출간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상산삼매〉는 예헌 이철환(1722~1779)이 1753년 10월 9일부터 1754년 1월 29일까지 충남 내포 가야산 일대를 유람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는 1책 45장의 필사본이 남아있다. 저자인 이철환은 성호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한 남인학파였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유생이었다.

책에 따르면 이철환은 장천(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을 근거지로 내포 일대를 4개월여 동안 두루 관람한다. 이를 통해 가야산과 상왕산 등이 보여주는 자연경관 뿐 아니라 보원사와 보현사, 문수사 개심사, 가야사 등 100여개의 사찰과 암자 등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당시 사찰에서 시행된 음악 연주와 연희, 꼭두각시 놀이를 비롯한 사찰 관련 전설들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발간에 대해 보원사는 "〈상산삼매〉는 내포 가야산이 불교문화특구였음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료다. 당시에는 많은 사찰이 있었던 것 뿐 아니라 사찰에서 살고 있었던 스님들의 다양한 기예까지도 기록돼 있다"며 "이 책은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창건 1440년 왕흥사, 다시 조명한다

부여군 · 부여博 · 부여문화재硏, 9일 특별전 업무협약

올해로 창건 1440년을 맞는 백제 왕흥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여군과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6월 9일 부여군청에서 '백제 왕흥사'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부여군수와 이주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백제 왕흥사 창건 1440년을 기념해 왕흥사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백제 왕실이 발원한 왕흥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협의했다. 특별전은 오는 7~10월, 학술심포지엄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는 부여군 규암면 신리 일대에 위치한 백제의 대표적인 왕실 사찰이다. 2007년 목탑터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왕흥사지 사리기(보물 제1767호)'를 통해 백제의 창왕(위덕왕)이 정유년(577년) 2월 15일에 창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最古)의 치미가 온전한 상태로 보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부여군과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6월 9일 '백제 왕흥사'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인원 9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윤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연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